"납골제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토지행정학회 종교계·시민등 748명 설문조사

◇김태복교수

납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환경단체와 종교단체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문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토지행정학회 회장인 김태복교수(중부대)는 지난 5~6일 유성레전드호텔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의 한국묘지문제 개혁을 위한 세미나'에서 '지방자치시대의 한국묘지문제 개혁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묘지문제와 관련한 설문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8월17일~31일까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장묘업무담당 공무원, 장묘업계(제2국립묘지 서울시장묘사업소 공원묘원 등), 교수, 전문직, 시민단체, 시민, 대학(원)생 등 7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골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환경단체(48.8%)와 종교단체(29.7%), 행정기관 및 지방의회(18.3%)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현대화된 납골묘원의 시범적인 조성은 관광지가 있는 사찰 및 공원묘원을 선호(49.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공설묘지의 운용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운용이 71%인 반면, 수익사업으로는 14.7%에 그쳐 이에 대한 교계의 사회복지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시민·사회·환경단체서 선도" 49%
수익사업보다 복지차원 운영 71%

특히 한국형 납골묘지모형 등의 공모와 지역별 특성에 따른 묘지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골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납골제도에 따를 시 납골당의 안치기간은 10년이상이 48.8%, 5년이 23%, 7년이 15.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직계가족과 배우자가 사망시 택하는 주요 장례방법은 아직도 묘지로 지정안된 선산 또는 종중산 등에 매장하는 것이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법묘지관행과 매장관습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밖에 묘지이용과 관련, 기존묘지를 합리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58.6%로 나타나 묘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함을 보여줬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령, 국립묘지관리령 등의 보완에 대해 51.9%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28.9%는 입법·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교수는 "전국 9천9백80여개소의 공동묘지 재활용방안, 약 7백50만기로 추산되는 무연분묘의 합리적 처리방안등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공설묘지와 종교단체의 묘지가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큰스님 앞에 가면 질문이 막혀요

문 여러해 사찰에 다녔고 관련 서적도 많이 보았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선 제법 불교가 어떻고…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큰 스님 앞에 가면 말문이 콱 막혀 질문을 할 수 없는데요. 스스로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박희문·경기 안산시 성곡동〉

답 우리는 지금 말없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것이고, 보지 않고 보는 능력, 듣지 않고 듣는 능력,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함이 없이 한다'는 도리를 터득하고자 노력하는 게 불법공부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게 말같이 되는 일은 아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한다, 내가 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스님 앞에 가서 말문이 막힌다고 하는데 그 또한 '질문하는 나'가 굳게 자리를 잡고 있는 까닭입니다.

전에 어떤 학인이 한암스님께 공부해서 깨치는 길을 여쭈었더니 큰 스님 말씀이 '삼년을 눈 뜨고 푹 쉬면 된다'고 하셨더랍니다. 큰 스님 말씀은 보지 않고 보는, 듣지 않고 듣는 도리를 가르치시려 한 것이지요.

처사님이 제법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도 스님 앞에서 말이 막힌다 하는 것은 처사님의 공부가 비유하자면 김치를 담그는데 무·배추는 장만했지만 양념을 알맞게 구비해서 잘 버무리는 것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해야 하는데… 하고 애써 지어내려 할 것도 없고, 또 질문하고 싶은게 생각나면 그대로 물으면 됐지 이런 질문이 이치에 맞을까 안맞을까, 혹은 유치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짓기에 말문이 막히는 것이지요.

설사 질문 내용이 유치하다 하면 어떻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틀리는 것도 법, 안틀리는 것도 법인데 유치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쓸모없는 것,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사량분별로야 저 벌레먹은 고목이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다 하겠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산에 산다운 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멋진 질문, 그럴싸한 질문을 할려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 빗나간 것입니다.

답 우선 보살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철석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마음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란 체가 없으면서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그 공능 또한 무한·무량이라 하셨습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없이 마음이란 비유컨데 무량의 보배창고입니다. 또 발전소로 비유하면 무한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나 같습니다. 먼저 그 점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으니 어디에나 미칠 것이고 내 아들에게도 아무런 걸림이 없이 미칠 것입니다. 그것을 또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어서 보살님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방마다 전선을 가설해 놓고 전등을 달아 놓지요. 그렇게 해서 소케트의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방방이 밝아지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같이 가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바로 전등·스위치·전선으로 연결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전기는 다 흐르고 있으니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전선마다 전기는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스위치를 올릴 생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믿고 내 마음의 불을 켜면 아들의 마음에도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철석같이 믿지 못한다면 스위치를 제대로 올리지도 않고 방방에 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아들이 이 도리를 모른다해도 보살님의 마음이 지극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애걸복걸, 안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뿌리이니까 아들을 턱 믿고 '스스로 밝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믿고 놓으십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주면 나무도 잘 자라는 법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모든 중생을 내몸같이 사랑하신 그 동체대비가 곧 한마음의 도리입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대학원생 아들이 방황하는데

문 대학원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니입니다. 3학년 전 어느날 아들이 갑자기 휴학을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자퇴를 하겠다고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미륵신앙, 시대따라 달랐다

신라-상류 귀족층 고려·조선-하층민중이 주로 신봉

심재숙씨 '구비문학…'서 주장

◇중원 미륵사지 미륵불.

설화 속의 미륵은 왕권을 수호하는 편에 서는가 하면 민중의 꿈을 대변하기도 한다. 또한 민중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절대자인가 하면 좌절된 민중의 꿈을 표상하기도 한다.

이처럼 "설화에 나타난 미륵의 성격이 단일하지 않은 것은 전승시기나 전승집단의 성격에 따라 미륵에 대한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구비문학회(회장 서대석)의 학술지인 〈구비문학연구〉 제2집에 심재숙씨(고려대 박사과정)가 발표한 '설화에 나타난 미륵의 형상화 양상과 그 의미'는 〈삼국유사〉와 구비설화에 나타난 미륵이야기를 통해 신라시대 이후의 미륵의 형상화 양상과 의미를 분석했다.

논문의 요지는 귀족불교가 주류를 이루었던 신라시대의 미륵신앙은 불교의 전체적인 성향과 마찬가지로 상층중심의 것이었던 데 비해 고려시대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미륵신앙은 하층민중의 신앙으로 역할했다는 것.

구비전승되는 미륵이야기는 미륵의 형상화 양상에 따라 크게 '미완의 미래불'로서의 미륵과 '꿈의 구현자'로서의 미륵으로 나눠진다. 이같은 구비설화 속의 미륵은 고려시대 이후 민중이 끊임없이 감당해야 했던 현실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꿈에 대한 상징적 표현물이란 설명이다.

"발해는 황제국…북한측 연구 활발"

연변대 방학봉교수 4일 '발해사 강연'

연변대 발해사연구소장 방학봉교수 초청 '발해사 학술강연'이 지난 4일 정토회 국제사업부 주최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방교수는 "발해지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변방지역에 속하므로 발해사 연구는 주변 국가 각자의 이해관계와 연관돼 예민한 문제"라며 "북한이 발해사의 역사적 전통성을 안정, 고려의 후삼국통일을 우리 역사의 최초의 통일이라고 주장하면서 발해사를 이해하려는 입장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의 폐쇄적인 민족정책에 따라 한국학자들의 발해유적 조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태. 발해사 관련 논문은 대체로 1천편 정도이며, 이들 중 러시아는 4%, 중국 53%, 일본 23%, 남·북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방교수는 또 "정효공주 묘비문에 아버지 문왕을 황상(皇上)이라고 표현한 것은 발해가 황제국을 표방한 증거"라고 말했다.

근대사 50년 자료 정리

불교 근현대사연구회

선우도량 부설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는 근현대사의 불교자료집 발간을 위해 1920년~70년까지의 주요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1차 자료수집을 마치고 10월에 책으로 묶는다.

◇김용사 입구 일주문.

한국 사찰의 주련

권영한

김용사

일주문

入此門來莫存知解
(입차문래막존지해)

無解空器大道成滿
(무해공기대도성만)

이 문을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피우지 말라
알음알이 없는 빈 그릇이 큰 도를 이루리라

해설 김용사(金龍寺)는 신라 제26대 진평왕 10년(서기 588년)에 운달(雲達)조사가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는 완전히 불타는 비운을 맞았으나 인조 2년(1649)에 혜총선사가 중건했다.

48동의 건물과 14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전할만큼 규모가 컸던 김용사는 지금도 규모면에서나 역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찰이다. 일주문의 주련은 이 사찰이 선·교에 치우치지 않은 수행도량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세속의 번뇌 마음 비우라' 경고

우선 사찰을 들어설 때는 세속에서의 지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찰은 무엇을 채우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러 오는 곳이란 뜻이다. 사찰이 수행도량일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비워냄'의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비우지 못하여 넘쳐나는 것은 번뇌요 망상일 뿐이다.

그래서 일주문의 의미는 각별하다.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선이 바로 일주문이다. 번뇌의 세계와 그 번뇌를 씻어 맑고 맑은 자성(自性)을 찾는 세계 사이에 선 문이 바로 일주문이다.

번뇌와 해탈의 가운데점에 서 있는 일주문에 '속세의 알음알이를 버리고 들어오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음으로 사찰은 엄연한 도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마음 속의 세속 먼지를 털고 들어오면 알음알이가 없는 텅빈 그릇과 같은 마음에 커다란 도(道)가 충만하리라는 것. 이 얼마나 희망찬 경고인가.

〈안동 경안중 교사〉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 66-1 (053-252-8274)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총판 윤주사 ·종로구 청진동 6번지 ·TEL (02) 720-9372~3 ·FAX (02) 723-06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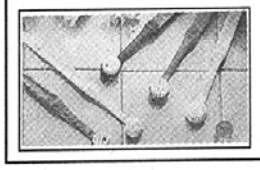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오직 일념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규동 대표 이규영 합장
동양석재 주간:(0357)541-4705 야간:(0351)847-2001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468-8329 ■호출기:012-307-8329 박석언 합장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02)273-1239 대표 이강화 합장

관음손 어린이 포교를 위한 불교용품·불교서적 판매 스님을 위한 신변잡화·염주 염가 주문제작 비디오·카세트·설법집·단체용품 기획제작 720-1147(~8)

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울상사) ■전화:(02)556-3076~7 ■팩스:(02)556-3078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쉽게 풀이된 최신「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특전: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무축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최경일(남, 27세)드림—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